

## 화천형 인구감소 대응 모델 도내 최우수 모범사례 선정

화천군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화천군의 '생애 최고의 선물, 화천형 보금자리, 교육+돌봄+주택 페키지, 화천 애육친화마을 조성' 사업을 인구감소 대응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내년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화천군의 모델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자녀교육과 돌봄 부담, 주거 불안을 페키지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교육비 지원 분야에서 군민 대학생 자녀 실태 등록금 4년 간 100%, 거주공간 지원금, 세계 우수대학 유학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서는 매년 방학마다 학습캠프를 열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매년 해외 어학연수와 배낭여행을 지원하고 있다.

돌봄 분야에서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체 주도 온종일 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를 운영 중이며, 내년 사내면에도 커뮤니티 센터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또 군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지난달 준공했다. 임주세대는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90%가 감면돼 월 3만6,000원만 내면 최초 5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 춘천시, 공공일자리 운영체계

### 손질해 내년도 추진

춘천시(시장 유통한)가 2026년부터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내년도 춘천시 공공일자리 사업은 연간 400명 규모로 운영된다. 희망일자리 336명, 행복일자리 2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44명으로 구성되며, 상·하반기 각 200명씩 선발한다. 이에 따라 1회 평균 참여 인원은 올해 164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약 22% 확대된다.

참여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미만이고 재산 4억 원 미만인 만 18세 이상 춘천시민이다.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는 내년 1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희망·행복·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462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환경정비와 공공업무 보조, 시설 홍보 등 현장에서 행정 서비스를 뒷받침하며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기여해 왔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시는 내년부터 공공일자리 운영 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듬는다. 그동안 유사하게 운영돼 온 희망일자리,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3개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영하고, 참여자는 동일한 기간에 신청하되 사업 유형별로 구분 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삶의 만족도·행복도 꾸준히 상승

### 김진태 지사 "도 중점 추진 정책 긍정적 변화... 도민 의견 적극 반영, 부족한 부분 보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부의 평가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연례조사다.

금년에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15,800가구를 대상으로 주관적 웰빙, 인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여가 등 7개 부문 37개 항목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주관적 웰빙 부문에서는 만족도와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55점(10점기준)으로 2024년(6.51점) 대비 0.04점, '지역 생활 만족도'는 6.49점으로 2024년(6.39점) 대비 0.10점 상승했다.

얼마나 행복한지를 나타내는 '어제의 행복도'는 6.60점으로, 2024년(6.53점) 보다 0.07점 높아졌다.

특히, 세 지표 모두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지역사회 참여 확대, 정부 의사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부문에서는, 저출산 지원 방안으로 '양육비 지원(38.0%)', 인구 유입 정책(38.0%)으로는 '기업 유치'의 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도민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으며, 인구 유입 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지원이 아닌,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 비율은 60.1%로 2년 전보다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교통 부문에서는 10년후 도

소득 및 여가 부문의 경우 만족도는 2년 전보다 상승했지만,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소폭 하락했다.

소득 만족도는 2.90점(5점기준) 2023년(2.85점) 대비 0.05점, 여가 활동 만족도는 2.88점 2023년(2.86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만족도 자체는 보통(3.0점)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42.0%(23년 43.4%)로 1.4%p 하락했으며, 도민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접근성 향상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미취학 아동 보육환경 만족도는 3.40점(5점기준), 초·중·고 교육 환경 만족도는 3.05점으로 2년 전보다 각각 0.24점과 0.12점 높아졌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 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 등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다만, 소득 증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보다 나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된 만큼,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족한 부분은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 이울진료회, 연말 의료봉사 45년간 '온기' 선물



눔, 찾아가는 방문 예보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꼼꼼히 살폈다.

이울진료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연합 의료봉사 동아리로 1965년 창설되었으며, 1980년부터 꾸준히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방방마다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지원해 오고 있다.

김경환 서울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추운 연말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의료봉사를 통해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바쁜 일정에도 의미 있는 곳에 힘을 보태준 이울진료회 단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 설악정수장 복개 완료...수돗물 안전망 강화

속초시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속초정수장 침전지 덮개를 설치한데 이어 설악정수장의 침전지와 침수정 복개 공사도 완료하며 물 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시는 12월 29일, 복개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식을 관계기관·사회 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국내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정수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형생물(유동)의 유입과 발생이 쉽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소형생물을 비롯한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속초시는 선제적으로 2024년에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속초정수장 침전지 덮개 설치를 마무리한 바 있다. 당시, 침전지 660m<sup>2</sup>를 완벽하게 덮는 PVF 막 구조물을 다양한 최신설비를 적용한 덮개 공사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올해에도 시는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악정수장의 침전지 및 침수정을 덮는 341m<sup>2</sup> 규모의 PVF 막 구조물을 설치하는 복개 공사를 추진했다. PVF 막 재질은 내구연한이 길고 부식에 강하며, 환경유해물질이 발

생하지 않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물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조물에는 출입자의 입·출입 시, 벌레 등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에어커튼을 3개 설치했으며, 혹여나 유입될 수 있는 벌레를 제거할 수 있는 포충기 6개도 별도로 설치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시민의 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수돗물을 더욱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생산 및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수장 위생 관리와 물 공급 관리망을 더욱 체계화하고 고도화해 수질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릉시, 2026년 해양수산분야 325억 원 투입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다숲 조성사업 2개소,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1개소 등 수산자원 서식처 복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여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지원한다. 이울러 정동, 심곡, 강문, 사천 등 해역에서 해조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해조류 가공 기자재 및 포장재 제작 지원을 통해 강릉 미역(해조류)을 특화하고 부가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촌신 헐력 증진사업, 일농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어촌어항재생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촌 활성화 기반을 분격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어업인 복지 강화와 어촌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어업인 정착 지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어업인 수당 지원, 공의 직불금 등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과 동시에, 주문진항 제2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증축을 통해 외국인 선원 주거복지와 고용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김민석 기자

## 동해시, 「취미로 잇다-시즌 2」 성과 눈길

### 총 2쌍 커플 성사,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으로 실효성 입증



동해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운영한 미혼 청년 취미 클래스 「취미로 잇다-시즌 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동해시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만 30세부터 45세까지의 미혼 남녀 30명이 참여했다.

이번 시즌은 상반기 운영 결과와 함께 여자 설문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을 보완·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3개 클래스에서 4개 클래스로 확대 운영하고, 여성 선호도가 높은 바리스타 및 플라워 테라피 클래스를 추가해 참여 만족도와 성별 균형을 학

과 높였다. 또한 유사 연령대 중심으로 조를 편성해 참여자 간 공감대를 강화하고,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그 결과, 참여 인원 규모와 평일 저녁 시간대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84%를 기록했다. 이어 인원 규모와 평일 저녁 시간대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84%를 기록했다.

이울라 프로그램 참여 후 결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94%에 달하는 등, 단순 체험형 프로그램을 넘어 미혼 청년의 관계 형성과 인식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시즌을 통해 총 2쌍의 커플이 성사되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며, 「취미로 잇다」가 미혼 청년 간 만남의 장으로서 실효성을 갖춘 프로그램임을 확인했다.

동해시는 이번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유로운 교류 시간을 확대하고 사후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관계 형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신규 체험형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동해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운영한 미혼 청년 취미 클래스 「취미로 잇다-시즌 2」를 성

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취미로 잇다-시즌 2」는 바쁜 일상 속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취미 활동을 매개로 한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내 청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025년 한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금천구의회가 되겠습니다.  
-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 -

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

이연식 의원

고양찬 의원

김용술 의원

도병우 의원

장승기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

임샛별 의원

윤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

